

社說

“낮게 달린 과일 이제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낮게 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손쉽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든 비유다. 그는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길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역대 한은 총재와 달리 이 총재가 직설적 쓴소리를 자주 내놓는 것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탈출할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기업인 대상 강연에선 “10년 넘게 중국 특수(特需)에 취한 바람에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엔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란 말도 했다. 재정 통화 정책이란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푸는 방식이다.

벽에 부딪힌 경제를 도약시키려면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이 과제를 미루고 또 미뤘다. 정부는 땀 흘린 처방으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 하고 사회 각 분야의 견고한 기둥들은 제 이익을 지키려 못 하는 일이 없는 지경이다. 신산업의 씨뿌리 잘라버리는 것은 그 한 예일 뿐이다. 사회적 타협을 주도해 구조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할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숫자가 많은 이익집단에 영합하기만 한다. 그 결과가 미국·일본보다 낮은 구조적 저성장이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과거의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남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면 즉시 도태되는 이 혁신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교육 개혁), 이들이 마음껏 뿔 수 있도록 혁신의 장을 조성하고(노동·규제 개혁),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연금 개혁).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과 달리 우리는 청년 세대의 역동성이라는 잠재력이 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통해 단군 이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청년 세대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한국 경제가 살길이다.

손잡은 두 명의 피고인 당 대표, 무슨 연대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만나 선거 연대를 발표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신들은 지역구 후보를 내 안고 비례대표에만 주력할 테니 민주당은 지역구에 전념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은 일명 ‘조국당’이 말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당 대표이면서 형사 피고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혐의도 뇌물, 배임 등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비리 범죄다. 민주당은 기소만 돼도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이 대표 스스로 고쳐 지금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파렴치 범죄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두 정당 대표로 만난 장면 자체가 지금 야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준다. 과거 같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

회의원 선거 출마도 어려웠을 사람들이다. 범죄 혐의도 기소되고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고 나아가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윤석열 정권 종식’을 외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큰 역할을 했다. 조국 사태 때문에 탄압을 받은 윤 검찰총장이 정치 입문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한 사람이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 후보였지만 대장동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각종 개인적 흠결 때문에 국민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 탄생에 누구보다 이바지한 사람들이 정권 종식을 외치고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결국은 선거를 이용해 개인 비리에 면죄부를 받고 권력을 계속 잡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양쪽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우리 편’ 이런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여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학들,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 의대 증원 신청

정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중 최다치(2847명)도 뛰어넘는다. 특히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전체의 72%인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들의 반대와 달리 자발적인 의대 증원 수요가 있음이 확인됐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만 26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사들 요구에 밀려 351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대학들 판단은 달랐다. 의대 증원으로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대학의 위상 제고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지방 대학 총장들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의 뜻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엔 대학들에 의학 교육 여건도 감안해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대폭 증원 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도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은 있다는 뜻이다.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 축소와 진료 연기 외에 일부 병동을 통폐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전임의들 이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서울 상위 5개 대형 병원의 사 중 19%(1330명)가 전임의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과업을 하는 것은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질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환자를 버리고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을 보며 놀라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유지하는 등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나훈아의 은퇴 선언이 조국에게 주는 메시지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오죽하면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사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겠나.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졌던 이 말을 세상에 널리 퍼뜨린 이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게 진짜 앞이라고 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삶의 경지다.

얼마 전 가수 나훈아가 은퇴를 시사하는 편지를 쓰며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생각지 못했다’는 말로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는 평생 잡았던 마이크를 언제 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그 앞이 박수받으며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정치인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했다. 애제자 알키비아데스가 정치 입문을 선언하자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이들이 아테네 민주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온 자기 모습은 아테네 최고 권

력자 페리클레스의 조카라는 정치적 영광과 잘생긴 외모였다. 작은 불이익도 참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은 보지 못했다.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그는 반대에 의해 궁지에 몰리자 적국 스파르타로 망명했고 조국을 침략할 정보도 넘겼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러 나라를 망명하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가 자신의 이런 면을 미리 알았다면 정치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며칠 전 유튜브에 나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가장 후회스럽다

‘마이크 놓겠다’ 선언한 나훈아 은퇴할 때를 알기에 박수받아 ‘대입 기회 균등’ 공약한 조국 자기가 한 일 몰라서 이러는가

고 했다. 그는 정치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가 정말로 후회해야 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윤 총장의 인사 검증에 했다. 검증을 통과한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스스로 돌아봐도 땀뻗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은 정의로운 수사해도 나를 게 없다는 믿음은 착각이었다. 윤 총장이 지시대로 눈치 안 보고 수사를 시작하자 온갖 비리 의혹

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그 후 문 정권이 이 수사를 막기 위해 벌인 모든 소동은 뒤늦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문 정권 연장 실패의 시발점은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였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선언하며 내건 표어가 ‘대학 입시 기회 균등 선별’이다.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게 정치라지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놀 수 있나. 정치인을 향한 존경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하는 의회 연설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 말로만 끝내지 않고 자신도 나치에 침략당한 프랑스를 도우려고 비행기에 올랐다가 도버해협에서 나치 전투기에 격추될 뻔했다. ‘그에 대한 찬사가 온데 많은 정치인이 받을 수 없었던 독특한 것은 말과 행동 사이의 오래된 대립을 없앴다는 찬사였다.’(‘윈스턴 처칠, 운명과 함께 걷다’·박지향 지음)

그리스 신화 속 청년 나르시스는 자기에게 뜨거운 열기에 데어 목숨을 잃었다. 매일같이 물속에 자기 모습을 비춰지만 자신에게 도취된 탓에 자기가 누구인지 성찰하지 못했다. 그런 나르시스를 추종했던 에코는 “슬프다, 헛되이 찬미받은 청년이여”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에코에 둘러싸여 정치의 길에 들어섰다. 그가 헛되이 찬미받지 않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김준의 맛과 섬 1800

강릉 산채정식

강릉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다. 여기에 커피와 서핑이 접목되어 젊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곳에 며칠 동안 폭설이 쏟아졌다. 그 눈길을 헤집고 찾아간 곳이 소금강 장천마을 산나물 백반을 내놓는 집이다.

산골에서 살았던지라 나물이라면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만, 안주인이 내놓은 산채정식을 보고 기가 죽었다. 저 나물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했다. 취나물, 명이나물, 나물튀김, 뽕잎, 다래 순, 가지, 참두릅, 까마귀 버섯, 갯잎, 개두릅, 갯방풍, 무나물, 더덕, 고사리, 고구마 줄기, 새송이버섯 등 열댓가지다. 여기에 능이버섯을 넣은 무국과 오곡밥을 내놓았다. 반주는 옥수수 막걸리다. 늘 주문진이나 사천전에서 생선구이나 탕이나 회나 조림을 찾았

기에 강릉에 산나물이 많이 난다는 것을 감탄했다. 산채정식에 올라온 바다 음식은 고등어구이와 서거리젓과 낙지젓이 전부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 비우는 데 부족함이 없다.

장천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바로 떠올린 생각이 장도였다. 송도만큼이나 흔한 섬 이름이다. 전라도 말로는 진섬이다. 엉뚱한 한자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섬 길이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해나 서남해에 있는 장도는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갯벌이 형성된다. 그 갯벌에 바지락을 시작으로 백합, 동죽, 개조개, 살조개, 키조개 등 다양한 조개가 서식한다. 오대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소금강 한 자락인 장천에 다양한 산나물이 자리를 잡은 것과 비슷하다.

더구나 눈에는 질소가 많아 이들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눈은 천천히 녹으면서 산나물이 잘 자라도록 수분을 공급한다. 게다가 지표면을 덮어 겨울살이를 하는 식물이 얼지 않고 썩을 틈을 줄 수 있게 도와준다. 지형상 봄을 앞두고 눈이 많은 강릉에 좋은 산나물이 많은 이유이다. 심심산골이지만 바다까지 지척이다. 강릉의 맛은 바다와 산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갯벌 좋은 곳에 갯갈 정식이 있다면, 깊은 계곡에 산채 정식이려면 지나칠까. 오는 봄에 맛을 산채 밥상이 기다려진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자유 순교자 나발니를 애도하며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닥쳐온다 ... 4.10 총선에서 결판난다

[여 vs 야] [윤석열-한동훈 vs 이재명] 단순 싸움 아니다 [자유]냐? [비 자유]냐? ... 세계사적 흐름 싸움 민주당은 [자유 없는 민주주의] 추종세력에 점령 당했다

진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한국의 4.10 총선도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사상결단이 될 것이다.

세계사적 흐름
4.10 총선은 뭔가?
러시아의 자유 투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인들의 애도와 분노를 접하면서, 평가 가슴에 와 꽂히는 게 있었다.

[자유 깎아 문개기] 대우행
북·중·러,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유라시아 여러 나라들이 [공고화된 권위주의 정권] (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으로 분류되고 있다. (Freedom House, 2020).

압제와 공포가 넘실대는 시대
오늘의 세계사는 [자유 있는 민주주의]에서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역류하고 있다. 이 역사적 반동에 대한 [자유]의 투쟁은, 그래서 오늘의 [보편적 시대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 되어야 한다.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은 그 [자유 투쟁]의 제단에 바쳐

서아시아의 튀르키예와 아프가니스탄도, 서남아시아의 이란과 파키스탄도,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도, 다 그렇다. 동유럽의 헝가리-폴란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까지도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로 보는 시각이 있다.

[자유] 없는 이름만 [민주]인 국가들
[자유 없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나치파시스트 독재를 연상시킬 만큼, 자유 인권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가한다.

알렉세이 나발니 외에, 푸틴에 맞선 전 KGB 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푸틴에게 대든 심복 예브게니 프리고진, 전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언론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 등이 모두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시진핑 중공은 인권 운동가 신장 위구르 주민-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중동의 비판적 언론인 카소프지는 튀르키예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서 잔인하게 도륙 당했다.

북한에선 10대 청소년 두 명이 남한 영상물을 봤다 해서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오빠, 자기가 같은 말을 써도 잡혀간다. 정치범 수용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수결의 이름] 아래
한국에선? 한국에선 국회 과반 의석과 사법부를 장악한 NL 운동권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같은 [검역정 하명법] 따위를 마구 만들어냈다.

탈북 청년 두 명은 두 팔이 공공 목인 채, 가면 총살당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진 살인이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 = [민중민주주의]
어찌할 것인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답하라. 4.10 총선은 [자유] 가치의 소생이 될 것인가. [죽음]이 될 것인가?

자유 순교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애도하며!

1류 글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이창승 칼럼: 당권쟁탈대결이 최고	류근일 칼럼: 31절 경이문 국민대회보니
이재명 3대 총선전략 - ① 승배 무런 ② 문제인계 제거 ③ 당권 대권 반대파 세 말라기	이 음험한 현실 - 민중민주주의의 이상, 사회 곳곳에 이미 퍼졌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3월 4일 게재 되었습니다.